

지자체의 건축자산 발굴, 활용 노력

인천시 재생콘텐츠과
2020. 7. 20.

세종시 도시성장본부 도시재생과
2020. 8. 2.

서울시 도시재생실 공공재생과
2020. 8. 6.

인천시, 옛 세관창고와 부지 활용 방안 모색

인천시와 인천본부세관이 인천 내항 1부두 옛 세관창고를 시민에게 개방하고 세관역사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기본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수인선 신포역 부근에 위치한 옛 세관창고는 1911년 건립되어 2013년 국가등록 문화재 제569호(인천세관 구 창고와 부속동)로 지정되었으며, 인천항 개항과 근대 세관·관세행정의 역사를 보여주는 향만유산으로서 가치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는 옛 세관창고를 세관박물관으로 활용하고 주변 약 3,000m²를 도심 속 힐링 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내년 초 시민 개방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 기존 인천 중구 개항장 역사문화의 거리 코스, 인천 근대건축물탐방코스 등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세종시, '청자장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 추진

세종시가 '청자장 복합문화 공간 조성 사업'의 설계자 선정을 위한 설계제안서 평가를 추진한다. 청자장은 1985년 조치원 상리에 지어진 여관 겸 목욕탕 건물로, 사업을 통해 주민 문화향유 공간으로 리모델링된다. 7월 공간 전문운영자 선정을 마친 데 이어 설계공모를 진행하는 것으로, 세종시는 건축사가 선정되면 전문운영자·주민협의체와 함께 보완을 거쳐 11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인천 내항에 위치한 옛
세관창고 전경

출처: 인천시. (2020). 옛
세관창고 시민개방, 사-인천세관
손잡다! 7월 20일 보도자료.



시민 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될 청자장

출처: 세종시. (2020). 청자장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 준비
'착착'. 8월 2일 보도자료.

서울시, 서울역 폐쇄램프 재생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실시

서울역사에 20여 년간 방치되어 있던 구 서울역사 폐쇄램프*를 시민 중심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이 열린다. 폐쇄램프는 진출입로가 이중 나선형으로 분리돼 있는 독특한 구조로, 도심에서 매우 보기 드문 형태의 특색 있는 공간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특성을 살리고 시민들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창의적인 시민 아이디어를 담아 서울역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생할 계획이다. 시는 폐쇄램프의 이중 나선형 구조를 이용해 서울로7017 그리고 10월 개통되는 공중보행교와 연결하여 새로운 재생길을 조성한다. 폐쇄램프 재생공간은 현재 구 서울역사 옥상에 조성 중인 녹지·휴게 공간과도 연결된다.



구 서울역사 폐쇄램프

출처: 서울역 폐쇄램프 재생 활성화 아이디어 공모 홈페이지. <http://seoullo-idea.kr/>

* 높이 약20m, 연면적 1,159m² 규모